

‘2005 전국건축사대회’ 를 대 국민 홍보와 선언의 장으로

Utilizing "2005 Architect's Convention" for Publicity and Announcement

올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 40주년으로 성숙한 장년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해를 맞아 부산에서 개최될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보다 뜻 깊고 보람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1993년 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무려 12년의 공백을 딛고 재개되는 만큼 건축사의 위상과 자존심 회복을 통해 건축의 중흥을 꾀하고자 하는 원대한 취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됨으로써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되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4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건축사들은 급변하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국가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이 땅의 건축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대란과 지금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의지는 여지없이 꺾이고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져 급기야는 호구지책의 생존논리에 무릎 꿇고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조차 상실해 가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직무가 있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기에 모든 악조건과 현실적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도 없지만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재도약을 위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닌 실천만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가더라도 이 땅의 건축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명제아래 우리의 후배들에게만은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 변화에 무뎠습니다. 말로만 변했고 마음으로만 찾았습니다.

이래서는 생존도 비전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현실의 진리에 눈을 떠 정지된 지성이 아닌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허용이라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끌 수 없을 뿐더러 생존권 확보라는 지상과제에는 접근조차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국건축사대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건축사들의 개인적인 마인드는 장기불황의 고난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고의 변화만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의식의 집단화와 집단적 실행에 의한 가시적 영향력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공감하신다면 상징적 의미에서 넓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있는 부산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전국을 휩쓸고 올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물론이고 우리 협회와 건축사의 미래비전은 오로지 건축사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또 다른 어느 도시에서건 '전국건축사대회'가 열리는 그 곳 그 때가 바로 우리 건축사의 잠재력을 가다듬고 충전하는 유일한 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알리고 건축에 대한 중요성과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건축사대회는 이러한 범국민적 홍보효과가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전제조건입니다. 부수적 효과로는 직업적 특성상 초래될 수 있는 매너리즘에 의한 개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무한가치의 창조라는 집단적 목적의식에 충실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 생존권 확보라는 시대적 명제 앞에서 집단내부의 흑백논리는 공멸의 우를 자초할 뿐입니다. 저질(低質) 때문에 고급(高級)이 명든다는 이기적 사유에서 벗어나 저질의 고급화를 통한 고급의 초고급화(超高級化)를 유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국건축사대회가 보수교육이라는 관제의 틀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이고 일과성 행사였다면 이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미래비전의 창출을 위한 집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자발적 동참에 의한 적극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6월 25일에는 잠시 일손을 멈추시고 부산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부산의 모든 건축사들이 여러분께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건축사의 날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건축사상을 보여주겠다는 선언도 한번 해 봅시다.

변해야 살고 변화를 위한 길은 '2005 전국건축사대회'에 있습니다.

한번 건축사는 영원한 건축사라고 넓은 바다를 향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고 6월 25일에는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